

월비산·351고지 전몰용사 닉 기려

제43회 월비산 351고지 전몰용사 위령제 ... 한국전쟁 때 치열한 접전

현내면면영회(회장 이명철)가 주관한 '제43회 월비산 351고지 전몰용사 위령제'가 지난 6일 오전 10시 351고지 전적비가 있는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됐다.

육군 제5295부대장,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351고지 참전용사 중 유일한 생존자인 원종필씨(81세, 현내면 대진리)가 참석해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원씨는 회고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인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젊은이들도 희생정신과 안보의식을 항상 마음에 새겨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했다.

한편 월비산 351고지전투는 1951년 10월 중순부터 1953년 휴전직전까지 국군 제5·11·15·수도사단이 북한군



제43회 월비산 351고지 전몰용사 위령제가 지난 6일 351고지 전적비가 있는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됐다.

제3·7·9사단과 맞서 일곱차례에 걸쳐 치열한 진지쟁탈을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월비산과 351고지는 안타깝게도 북한땅에 속해 있다.

원광연 기자

거진읍 현내면

▶거진읍 시민기자
김일용(dragon4858@hanmail.net)
장공순(messsucher@hanmail.net)
▶현내면 시민기자
박선애(sarang365@nate.com)

※거진·현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3대 전통막국수 전문점

화진포 박포수가든

www.parkposu.com

막국수 · 시골두부
도토리묵 무침 · 편육

MBC 찾아라 맛있는 TV방영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298-5
☎033-682-4856, 010-5367-4856

거진읍 산북리 ·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자매결연

거진읍 산북리(이장 한용진)와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지사장 박남식)가 지난 10일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매결연식은 이날 오전 10시 산북리 마을회관에서 최영준 거진읍장과 마을주민 및 전기안전공사 박남식 지사장과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기안전공사와 함께하는 전기안전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산북마을이 우선으로 선정돼 마을 전체 29가구의 전기안전점검, 노후전기설비, 개·보수 등의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지역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



지난 10일 자매결연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산북리 한용진 이장(65세)은 "우리마을과 전기안전공사가 자매결연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을 대부분의 집이 건축된 지 30여년이 넘어 노후가 심해 여기저기 손볼 곳이 한 두군데가 아

니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세밀하게 점검해 주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에는 강원북부지사와 산하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거진종합고교 전기과 학생 11명이 현장실습차 함께 참여했다.

원광연 기자



거진 정치망 어선 물개 죽은 채 발견

지난 7일 오전 6시30분께 거진선적 정치망어선 G호가 쳐놓은 그물에 물개 한 마리가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날 잡힌 물개는 길이 150cm, 둘레 110cm, 무게 150kg의 수컷으로 경매를 통해 100만원에 낙찰됐다.

원광연 기자

거진용역

- ◇전문용역개발
- ◇준공청소, 철거전문(이삿짐)
- ◇집수리 전문
- ◇철근·목수·미장 대기
- ◇여관·관공서 청소 칠
- ◇방수·집중축·개축

인부 항시 대기
일하실 분 문의

대표 강 안 근

☎682-1283 / 018-244-1283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8리 3번

거진·현내 광고문의
☎681-1666~7